담뿍 물을 막은 무거운 멱서리때기를 걷고 발을 들여놓으니,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태현은 힘없이 좁은 통로를 걸어 자기 자리에 들어가, 신을 신은 채 불결한 침구 위에 덜컥 주저앉았다. 남편이돌아온 것도 모르고 과로해 잠든 아내 옆에 더러운 얼굴을 한 어린것들이 셋, 이불을 걷어차고 서로의 몸에 다리를 걸치며, 거센 명석자리 위에 곤드라져 있고, 손잡이가 떨어진 새까맣게 결은 냄비랑 풍로양재기, 새끼로 묶은 나뭇단 같은 것으로 겨우 경계를 한 옆칸 한가운데에는, 찌그러진 냄비가 자리를 잡고, 젊은 내외는 따로따로 머리를 맞대고, 벽쪽에 딱 붙어 직각으로 누워 역시 잠이 들었다. 뚫어진 지붕에서 새는 비는 바께쓰 속에 바로 떨어지기도 하고 빗떨어지기도 하여, 이런 곳에 어울리지 않는 연한 빛깔을 한 그 이불 귀통이가 흠뻑 젖어 있는 것이다.

대현이 들어올 때 불어들인 바람 때문인지, 문 옆에 자리잡은 노인 네가 몹시 쿨쿨거리며 일어나 앉는다.

새어 떨어지는 빗방울은 약한 서까래에 한참 매달렸다가 똑바로 떨어지기도 하고, 나뭇결을 타고 미끄러져 내려가 서너 치 건너서 떨

어지기도 한다. 새는 데는 한 군데뿐이 아니다. 여기저기서 거의 규칙적인 단조한 누수(漏水) 소리가 들리고, 초췌한 얼굴들이 입을 벌린 채 벌레같이 굴러 있는 것을, 꺼먹꺼먹하는 등잔불이 처창하게 비추고 있다.

구석 칸에서 젖먹이가 킹킹거리며 깬다. 굻아떨어졌던 어머니는 무의식중에 젖을 더듬어, 젖먹이의 얼굴에 갖다 대었다. 젖먹이는 한참 젖꼭지를 찾느라고 애를 쓰다가, 착 달라붙어 쭉쭉 소리를 내며 빨기 시작한다. 옆에서 자던 아이 아버지가 입속에서 무어라고 중얼 중얼하더니, 여럿이 덮고 있는 이불을 잠결에 혼자 쓸어덮고 돌아눕 는다. 아이들은 두 손을 다리 새에 끼고 새우같이 옹그라졌다.

퉁퉁퉁——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더욱 잦아 가서, 바깥보다도 큰 빗방울이 좔좔 쏟아지기 시작한다.

제각기 자기 몫으로 정해진 칸에서, 뒹굴어 자던 사람들은 새어 쏟아지는 비 성화에 잠이 깨어, 하나씩 둘씩 일어나 앉는다.

선잠을 깬 아이들이 킹킹거리고, 이불이랑 옷보퉁이를 들척거리며, 어른들이 중중거린다.

여러 사람의 호흡으로 흐려진 공기가 퀴퀴하고 후덥지근한 데도 추위가 뼛속까지 스민다.

"후——ㄱ."

이불을 혼자 쓸어덮고 자던 송 서방이 잠을 깨어, 누운 채 한숨을 꺼지게 쉬었다.

"온 겨울에 무슨 비야. 쯧쯧."

어린것에게 젖꼭지를 물린 채 곤드라졌던 그 아내도 아이들에게 이불을 끌어 덮어 주며 혀를 찼다.

아까부터 쿨럭거리던 배 노인의 기침이 숨이 막히도록 심해 간다. 마누라가 같이 일어나 앉아, 울상으로 넋 잃은 사람같이 영감의 모양을 쳐다보고 있다.

"휘이 — 人"

얇은 양철벽을 바람이 흔들고 지나간다. 출입구를 문짝 대신 막은, 물을 듬뿍 먹은 멱서리때기에서 짚 썩은 물이 뚝뚝 떨어졌다. "아이 추워."

이불을 걷어차고 자던 어린것들이, 몸을 옹크리며 잠꼬대같이 종 알거렸다. 그제야 태현은 문득 정신이 돌아왔다. 신은 신은 채 손을 뻗어, 오줌 냄새가 물씬 나는, 때에 결은 얇은 이불때기를 덮어 주 고, 무릎을 도사리고 턱을 괸 채 생각에 잠겼다.

자조의 쓴웃음이 입가에 떠 올랐다. 이 습기찬 맵게 추운 겨울비오는 밤에, 불씨 하나 없는 창고 속 찬 땅바닥 위에서, 멍석 한 닢만깔고 뒹구는 어린것들이 이불을 차 내던지고 자도 '춥다' 소리를 들을 때까지는 덮어 줄 생각을 못 했던 자기를 스스로 비웃었다.

"홍, 모든 것이 구실, 핑계에 지나지 않았어……."

속으로 되었다. 그 어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다는 것이 여지껏의 자기 행동에 대한 변명이요, 내용이 아니었던가?

마음 한구석에 항상 자리잡고 있는 아픔과, 참회가 또 발작적으로 부풀어올랐다.

퍽퍽 쏟아지는 눈을 마구 맞으며,

"우리 걱정은 말구 잘들 가거라."

하고 눈물을 흘리던 늙은 부모의 얼굴이, 눈앞에 떠오른다.

"꼭 뫼시구 가구 싶은데 이 추위에 노상에서 고생허시다 무슨 일이라도 나면 어떡허겠어요. 그렇다고 저희들만 떠날 수두 없는 일이구......"

뻔뻔스럽게 이런 말을 한 그 때는 벌써 피난 준비가 다 되어 있었고, 떠나는 시간까지 결정한 후였던 것이다. 말하자면 완성된 서류에 최후의 날인을 받기 위한 형식적 사령에 지나지 않았다.

"늙은 우리들 때문에 너희들까지 욕을 볼게 뭐 있니. 아예 걱정 말 구 어서어서 서둘러라."

"어머니……"

하고 우는 자기를 오히려 부드럽게 위로하던 어머니의 바다 같은 사랑!

그의 죄악감은 여러 가지 의미로 그를 짓눌렀다. 불효와 위선, 이 윽고 모략 —— 늙으신 어버이를 사지에 두고 온 죄 최후까지 가면을 쓴 죄 그 위에 선량하고 자애 깊은 무력한 노인들에게, 내 걱정 말구 가라는 일종의 면죄부(免罪符)를 강요한 죄 —— 뒤에 남는 노인의 불안과 슬픔과 공포를 걱정 말고 가라는 언사 아래에 역력히 들여다보며, 애써 눈을 가리고 못 이기는 체한 자기를 용서할 수가 없었다. "아이 추워."

하고 몸을 웅크린 어린것의 조그만 소리가 그에게는 '위선자!' 하는 조매(嘲罵)의 소리만 같았다.

어버이도 모르고, 어린 자식도 모르는 냉혈한(冷血漢) ——

바람이 휙—휙— 불어, 창고 위를 지나가는 전선이 윙윙 운다. 누구인지 일어나, 깡통에 좔좔 소피를 본다. 천장 꼭대기에 창이 하나 있을 뿐, 통 같은 창고 속에 열 세대 걸 너더분한 살림살이 도구로 경계를 한 따름이다. 실은 한 방에서 여러 세대가 거처하고 있는 것이다.

밤이 깊어 갔다. 어머니 품속에서 곤히 잠들었던 태현의 젖먹이 딸이, 콜콜거리기 시작한다. 백일해의 심한 발작으로 젖을 토하며 콜콜거린다. 마침내 지쳐서 늘어진다. 아내가 안고 일어나 앉아, 수심에 쌓인 얼굴로 들여다보는 것을 태현은 고집이나 부리듯 쳐다보지도 않는다.

"아이 또 토했구먼요. 이렇게 추우니 안 그렇겠어요?" 송 서방네가 딱한 듯이 말하고 길게 한숨을 쉬었다. "아——아."

양철벽에 기대앉은 채, 그는 폭 싸안은 젖먹이를 공연히 두어 번 흔들고, 필요 이상으로 포대기를 올려 덮었다. 이윽고 또 한숨을 쉬 었다. 처음에는 가벼운 위로의 의미로 한 말이 심각한 연상을 불러, 그는 눈물이 앞을 가리는 것이었다.

"아—순길아! 다섯 살이나 멕여 가지구, 흐으응 응—아이구 원통해."

다섯 살 난 아들을 피난 도중에 잃었다는 말은, 간헐적으로 되풀이 하는 송 서방네 넋두리로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다가 순길이를 본 일이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까닭에, 겉으로 동정은 하나마 그 것은 인사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 밤같이 음침한 비 내리는 겨울 밤 에는, 그 인사조차 할 겨를이 없다. 침묵이 흘렀다.

"아—아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흐으응—글쎄 그놈의 차가 폭발만 안 해두, 화차 꼭대기에나마 매달려 오지 않았겠어요. 아이 구 겨우 다섯 살 난 어린것을 엄동 설한의 천리 길을 걷게 했으니 후 —ㄱ."

송 서방이 쩍쩍 입맛을 다시고, 허리춤을 더듬어 곰방대를 꺼내 문다.

"아이구 몹쓸 년의 에미 같으니, 글쎄 그 어린것을 보구 어서 안 걸으면 두구 간다구, 채찍질을 했다구요. 기진 맥진해서 주저앉으려는 것을 사정없이 껄어댕기구, 흐으응 응 — 아이구."

"허험 허험 허."

송 서방이 눈을 꺼벅거리며, 선 기침을 한다.

"아이구 흐으응 응. 경칠 놈의 눈은 왜 그렇게 쏟아지는지, 아아. 고개 하나만 넘으면 마을이 있다 해서, 해안으로 가려구 불쌍한 어린 것만 족치는데, 눈 위에 죽 엎드러지더니 흐으응 글쎄 다시는 일어나 지 못허는 거예요. 으으응 — 응 아아."

"듣그러, 그만 둬."

남편은 다 타지도 않은 담배를 신경질적으로 탁탁 떨며, 퉁명스럽게 꾸짖었다. 그러나 손이 벌벌 떨린다. 그 어린것의 시체를, 어느곳인지도 모르는 산기슭에 손수 묻고 온 아비의 마음은, 넋두리로 표현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후 — 그."

전선이 또 윙윙 운다. 생굴같이 뿌연 배 노인의 늙은 눈에 눈물이고였다. 그는 그것을 가리려는 듯, 쿨쿨거리며 얼굴을 숙였다. 마누라는 아무 말 없이 코를 들이마시고, 역시 감정을 죽이느라고 찌들은 더러운 이불로 영감의 몸을 싸 주고 쪼그려 앉아, 꺼칠꺼칠한 멍석요에 깐 올이 보이지 않는 요 바닥을, 손가락으로 의미 없이 문지르기 시작했다.

"아이구 내 팔자야 후 ㅡ ㄱ."

한바탕 느껴 울던 송 서방네가 또 길게 한숨을 쉰다.

배 노인은 흐릿한 눈으로 그쪽을 더듬어 보고,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가슴에 대고 턱을 두어 번 까불었다.

는 밑에 커다란 주머니가 달린 기름한 얼굴에, 높다란 코, 새하얀 숱한 눈썹, 이마에 누비같이 잡힌 깊은 주름과, 코 양편에 패인 고통을 참고 있는 것 같은 선, 이윽고 약간 벌린 오므라진 창백한 입술, 빛 없는 무엇에 쫓기는 듯한 눈——누구나 한 번 보면, 잊지 못할인상을 주는 비극적인 얼굴이다.

언젠가 창고를 찾아온, 태현의 친구 변지용이,

"세대(世代)의 고뇌의 상징! 응? 나는 고뇌에 대한 외경(畏敬)의 념에서, 이 모자를 벗는 거야."

하던 그 얼굴에는 오늘따라 슬픔의 빛이 짙다.

그저 아들이 일선에 나가 있다는 것 외에는, 신상을 알 수 없는 이 조용한 늙은 내외는, 영감의 쿨룩거리는 소리 외에는 음성도 들을 수 없도록 말수가 적다. 생활이 어렵기도 하거니와, 깜짝 놀라도록 식 사량이 적어, 연명해 가는 것이 기적이었다. 항상 수심에 싸여 말하 자면 슬픔을 먹고 사는 것 같았다.

쏴르르 - 휙 휙

비바람 소리가 더욱 심해 갔다. 이칸 저칸에서 불안에 싸인 얼굴이 암담히 눈을 흐리고, 쏟아지는 빗발을 보고 있다.

부두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지상도 곤한 잠에서 깨어, 겨드랑을 북북 긁으며 일어나 앉는다. 몇 달 씻지 못한 몸에서 땟가루가 우수수 떨어진다. 그는 오금턱을 더듬어, 옷 속에서 커다란 이 한 마리를 잡아 내어, 뚝 소리를 내며 죽였다. 그는 징그러운 그 소리에 자극을 받았는지 등잔에 불을 댕기고 이불을 들쓴 후, 옷을 훌떡 벗어서 이사냥을 시작했다. 열심으로 솔기 속까지 더듬어, 서캐 한 마리 놓치지 않으려고 세심히 옷을 뒤적거리는 것을 보면, 가려워서 이를 없애려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뚝 뚝 죽이는 그 자체에, 잔인하고 불결한 일종의 쾌감을 느끼는 것 같다.

"부산이라는 덴, 기후조차 몰상식허구 인정이 없어. 그래 겨울에 눈이 오면 모르되, 웬 비란 말야."

지상과 부두에서 일을 하는 정 서방이, 바께쓰 옆에 또 깡통을 갖다 놓으며 두덜거린다. 비는 심술궂게 바께쓰와 깡통을 비켜 딴 곳에 떨어졌다.

"우라질 것 같으니…… 에이 맘대로 해라."

골이 난 정 서방은 쿵 소리가 나도록 양철벽에 가 턱 기댄다.

"올겨울엔 비가 많이 와서, 전선에선 병정들이 되놈보다도 범벅이 된 진흙길과 싸우느라구 고생이랍니다."

신혼 아내와 직각으로 머리를 맞대고 자던 인쇄소에 다니는 이상 후가, 여자 같은 음성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일어나 앉았다.

"후위 ---."

배 노인이 한숨을 쉰다. 재빨리 눈치를 본 지상이

"뭐, 전쟁에 나갔다구 다 죽나요?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막걸리로 탁해진 소리로 위로를 한다. 배 노인은 무어라고 하려다, 부들부들 떠는 손을 또 가슴에 갖다 대고, 턱을 두어 번 까불었을 따름이다. 누구에게나 보여서는 안 될 슬픔이기에, 그의 말은 언제나 혀끝에서 굳어 버리는 것이었다. 가슴 깊이 간직된 고뇌와 비애가 신음이란 형식으로 터지는 때도 있었으나, 신음이란 비애의 삭임

이 아니고, 비애의 새김질에 지나지 않는다. 국군 용사의 양친인 이 늙은 내외는, 동시에 과격한 빨치산의 어버이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구월 이십오일, 이별도 하지 않고 쏟아지는 포탄 속에 사라진 그아들, 생사도 모르는 그 아들, 긴장한 얼굴에 살기를 띠고, 한 마디의 말도 남기지 않고 가던 그 표범 같은 눈——이윽고 귀여운 막내 등이로 애지중지하던 아들, 이 추운 겨울비에 범벅이 된 진흙길과 싸우는 막내아들—— 영원히 평행선 위에 선, 형과 아우——다 같이자기 피를 이은, 사랑하는 아들들이었다.

"ofof---."

"참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여지껏 담요를 턱까지 덮고 꼼짝도 않던 송 서방네 건너편 칸에, 혼자 자는 청년이 벌떡 일어났다. 우뚝한 코에 파랗게 광채가 나는 눈을 가진 청년이다. 김병민이란 이름이라는데, 웬일인지 동숙자들 은 모두 청년, 청년 하고 불렀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밤에 돌아오지 않을 때가 많은 이 청년은, 이 창고 족속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여유가 있는 모양이다. 누런 미군 셔츠를 아무렇게나 입고, 담요로 무릎을 덮고 옆칸이 보이는 위치에 송 서방네 살림 도구에 기대앉는다.

옆칸에 사는 신미령은 자기 칸에는 비가 새지 않았건만, 아까부터 잠이 깨어 빗소리를 듣고 있었다.

"이런 밤에 지붕 밑에 있는 자는 행복한 자다. 따뜻한 한구석을 가 진 자는 행복할 것이다."

언젠가 읽은 투르게네프의 한 구절이 머리에 떠올랐다. 이런 창고 지붕이라도 지붕이라 할 수 있다면 자기는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다. 이곳이 무엇 따뜻한 한구석이리오, 여기는 다만 전쟁이란 선풍에, 뿔뿔이 흩어진 민족의 파편(破片)을 아무렇게나 쓸어 담은, 구접스레한 창고——실질적으로나 상징적(象徵的)으로나 한 개의 창고에 지나지 않는다. 이윽고 자기도 역시 한쪽의 파편, 완전

체(完全體)의 파편으로 인간 감정을 무시한 삶의 막다른 골목, 생활을 잃은 생존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문득 옆칸 청년의 음열에 타는 응시를 느낀다. 오한에 가까운 흥분 으로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져 갔다. 괴로웠다. 스물다섯 살의 젊은 과부는 이불로 얼굴을 가리고 구원이나 바라듯 옆에 누운 어머니를 더듬었다.

"o}—o}."

누구의 입에선지 한숨이 흘러 나온다. 비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매운 겨울밤은 깊어만 갔다.

"아이구 — 기진 아버지가 물을!"

송 서방네가 호들갑스럽게 수다를 떤다.

"안에서 몸이 성치 않아서요."

대현은 까닭없이 얼굴을 붉혔다. 이어 얼굴을 붉힌 자기에게 울화가 벌컥 났다. 자기란 무엇이냐? 창고 속에 쓰레기같이 굴러 있는 일개의 전재민——물을 긷는 남자가 자기 하나라면 모르되, 모두같이 물도 긷고 불도 피워 주고 하는데, 자기라고 그런 것이 기이하게 남에게도 보이고, 자신도 어색한 까닭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는 얼굴을 흐리고 물통 줄에 바께쓰를 놓았다. 철도 관사인지 같은 체재의 집이 늘어진 한길가에 있는 수도다. 가느다랗게 힘없이 흐르는 물줄기로, 언제 이 줄을 지은 물통을 다 채울는지 아득한 일이었다.

물꾼들 중에는 머리에 희끗희끗 흰 것이 보이는 노파가 있나 하면, 물통 길이보다 얼마 크지 않은 애처로운 소녀도 있고, 허접스레한 꼴을 한 사람들 중에는, 곱게 화장을 하고 주단으로 몸을 감은 젊은 새 댁도 섞여 있다.

한참 서 있으려니 수족의 감각이 없어진다. 이런 물로 손도 씻고 세수를 하였구나 하는 생각이, 누렇게 부은 영양 실조의 아내의 얼굴

과 함께 머리에 떠올랐다.

머리에 똬리를 인 채, 소녀들은 기다리는 동안에 실뜨기를 시작했다. 여인들은 새치기가 없나 감시의 눈을 번쩍이며, 한데 모여 이야 기꽃을 피웠다. 엿장수가 한 사람, 느른한 듯이 엿판을 담에 걸치고기대 서서, 간간이 생각이 난 듯 엿가위를 철컥거리며 우두커니 물꾼들을 쳐다보고 있다. 역으로 달리는 트럭이 마구 먼지를 일으켜 머리랑 옷이 삽시에 뿌예지고, 애써 받은 물위에 먼지가 와 뜬다.

"와이고 무시바라. 참말이지 피난민 낼로 우예 살겠노, 물 한분 길라 캐도 이 야단이고, 물건값은 올라가 쌓고, 집은 절단이고, 와이고 우야야 좋겠노."

광대뼈가 툭 불그러진 중년 여인이 거센 사투리로 머리를 설레설 레 흔들며 불평을 한다.

"뭐 어쩌구 어째요? 누가 피란 오구 싶어 왔수? 온 고생을 못 해 봐서 그런 소릴 허지."

송 서방네가 획 받아서 쏘아붙였다.

"온 세사아나, 염치가 이이야지."

"염치라니, 그래 부산것들 겉이 물 하나 안 노나 먹는 인정이 어딨 단 말이요? 응, 바다에 한번 빠져 봐야 정신을 차린단 말이요?"

"와이구 이 안들이 와 이래쌓노?"

"아이구 지긋지긋해. 부산이라면, 이에서 신물이 난다!"

송 서방네는 바른손을 귀 옆에서 수다스럽게 흔들었다.

"누가 오락했소?"

"오구 싶어 온 줄 아우?"

"와이구 얄궃어라. 참 별꼴을 다 보겠네"

경상도 여인네는 앞으로 바싹바싹 다가서는 송 서방네를 팔 뒤꿈치로 밀었다.

"왜 손찌검을 허는 거야 응? 왜 손찌검을 허는 거야?"

송 서방네 얼굴이 새빨개진다. 이윽고 욕설이 구정물같이 쏟아져

나왔다.

이것이 현실이었다. 송 서방네도 시골서 반반하게 사는 집 부인으로 행세하던 사람이었다. 불행이 그의 이성과 체모와 수치심을 빼앗고, 대신 왕성한 생명력을 주었던 것이다. 다툼도 역시 일종의 생명력의 표현이라면.

한참을 울고불고 떠들던 송 서방네는 자기 차례가 오자 겨우 정신을 차리고 씩씩거리며 물을 받아 이고 마지막으로 상대를 쏘아본 후 창고로 돌아갔다. 그 뒤를 무거운 바께쓰를 들고 따라가는 대현은 몇 번이고 바께쓰를 고쳐 잡곤 하느라고 훨씬 뒤쳐지지 않을 수 없었다. 송 서방네의 왕성한 생활력에 새삼스레 압박을 받았다.

그러면 자기는 무엇인가? 위선자 냉혈한, 불효자——이런 자기 정의(自己定義) 속에 또 한 가지 내용이 첨부된다.

무능자!

이삼 일 전 일이다. 태현은 대학 동창인 변지용의 말에 끌려 그가 가장 친밀하다고 자칭하는 XX당 간부, XX회사 사장, 정민택 씨를 찾았다. 취직 자리를 구해서였다. 미상불 변지용은 정민택 씨와 친밀한 사이인 모양이었다. 그 앞에서 떠벌리고 웃고 떠들었다. 그러나 떨어진 구두에, 자꾸만 신경이 쓰여지는 태현의 눈에는 지용의 태도가 충견(忠犬) — 주인에게 꼬리를 치는 충견같이 보였다. 안락 의자에 점잖게 앉은 정 사장은 황송한 듯 꼬리를 치며 손등을 핥는 충견을 무료한 대로 잠시 놀리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는 까닭 모르는 굴욕감으로 얼굴이 화끈해졌다.

지용은 그 명사의 후대를 태현에게 보이는 것에 흥분하여, 약간 감흥이 지나쳤다. 따라서 최초의 용건은 수다한 화제 중의 한 토막으로 삽입되었을 뿐 조금도 실의가 없었다. 태현은 갈 때보다 더욱 큰 절망과 굴욕감을 안고 창고로 돌아왔던 것이다.

창고로 가는 도중에 있는 역 구내 부서진 화차 속에서 사는 전재민들이 바깥에 나와 빈 터에 쌓아 놓은 녹슨 헌 레일 위에 앉아 이를 잡

고 있는 것이 보였다.

부두가 가까워 부두 노동자를 상대로 하는 장사가 나날이 늘어가, 여기저기서 조그만 궤짝에 엿이랑 껌이랑 딱딱한 성냥, 담배, 강정 같은 것을 놓고, 몸뻬에 헌 군복을 입고, 수건으로 뺨을 싼 여인들이 서 있었다.

막걸리에 빈대떡을 부쳐 파는 사람 앞에는 솜을 넣어 누빈 공산군의 한 군복을 입은 우람하게 생긴 노무자들이 뒤꿈치만으로 몸을 받친 불안정한 자세로 쭈그려 앉아, 먹걸리를 쭈욱 들이켜곤 꺽——트림을 하고, 김이 무럭무럭 나는 빈대떡을 입에 넣고 있다. 태현은 입속에 침이 가득 고이는 것을 느꼈다. 구수한 녹두지짐 냄새는 쪼그라붙은 그의 위를 자극하여, 훑는 듯이 아프기 시작했다. 지난 수십일 동안 제법 음식다운 것은 받아 보지 못한 그의 위장이었다. 창고도 돌아갔을 때는 자기 얼굴이 창백해진 것을 스스로 느낄 수가 있었다.

빈대떡 장사를 하는 송 서방네는 어느새 창고 밖 양지바른 데서 녹 두를 갈고 있었다.

"아이구 애쓰시는구먼요."

그는 태현을 보자, 푸르죽죽한 잇몸을 드러내며 웃었다. 그 웃음에는 성실한 동정과 약간의 격의(隔意)가 섞여 있었다.

대현은 또 얼굴을 흐렸다. 이 창고 생활을 한 지 이미 수십 일—— 그만하면 한 자리에서 거처하는 사람들과 서로 가슴속을 풀어 보여도 좋을 것인데 언제까지나 피부가 다른 사람 모양으로 겉돌기만 하는 것인가? 이곳을 빠져 나갈 가능성이 적어진 지금에 와서는 하루바삐 자기 몸에 배어 버린 옛날의 체취를 떨어 버려야 할 것이었다. 그러나 그도 그 체취가 동숙자들과 간격을 가지게 하는 동시에, 그들과의 간격이 오히려 인생의 패잔자가 되려 하는 자기에게 남은 최후의 우월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간격이 없어지는 날 자기의 가련한 궁지도 상실되어 버릴 것이라고 서글프게 느끼고 있었다.

이 비참한 창고 생활에 있어서는 무능이 역설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의 서글픈 우월의 이유가 되어 있던 것이다.

그는 물을 창고 앞 돌 위에 건 솥 옆에 놓고, 안으로 들어갔다. 청 명한 공기를 호흡하던 코를, 형용할 수 없는 악취가 쿡 와 찌른다. 밝은 데서 갑자기 컴컴한 데로 들어와 가벼운 현기가 나고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는 잠깐 발을 멈추었다가 자기네 칸으로 들어갔다.

누렇게 뜬 얼굴이 부숙한 아내는 베개 대신에 베었던 헌 옷뭉치 위에 머리카락을 헤치고 가쁜 듯이 숨을 불고 있고, 더러운 머리가 더부룩하게 귀를 덮은 네 살 난 아들이 코투성이가 된 얼굴로 누가 쑤어다 준 듯한 죽 그릇을 다리 새에 끼고 멍석 바닥에 흘리며 먹고 있었다.

아내는 남편을 보자 미안한 듯이 눈을 감고 억지로 웃어 보이려 하였다. 그러나 누렇게 부은 얼굴은 약간 찌그러졌을 따름이다. 태현은 우뚝 선 채 말없이 아내를 내려다보았다. 이럴 때 무슨 말을 하여야 좋을 것인가? 아내는 남편의 시선에서 자기의 때문은 살을 감추려 하듯이, 마디가 굵어진 더러운 손으로 이불을 당겨 올렸다. 아내는 그런 여성이었다. 그런 여성이기에 무능한 남편과 함께 떨어질 대로 떨어진 사람이었다.

이 몇 년 동안 태현에게 권태를 느끼게 하던 아내의 성격이 이 누습한 창고 속 멍석 위에 누운 이때, 애달프도록 그의 가슴을 흔들었다.

대청에 길게 끈 다홍 치마에 금박이 노란 반회장 저고리를 입고 소소하게 섰던 아내의 옛모습이, 빨래뭉치를 베고 드러누운 누렇게 부은 얼굴에 와 겹쳤다. 무릎이 나온 양복을 입고 있는 자기도 황해도 대지주의 외아들로 단정한 성대(京城帝大)의 제모 아래, 수재다운 깨끗한 얼굴을 가진 행복한 청년이었다.

그러나 학창 시대의 행복한 수재는 사회에 나가서 무엇을 하였는

가? 상아탑을 나온 그는 결국 육지에 오른 물고기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의 비극은 자기의 열등(劣等)을 수긍 못 하는 데 있어서, 그는 쉴 새 없이 직업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이리하여 인생의 길 밖으로 굴러 내려가기 시작한 그였다. 그러나 마 서울서는 그럭저럭 그리 궁박은 느끼지 않고 지내 왔는데, 부산에 와서 지향 없는 생활을 여관방에서 보내다 보니 많지 않던 돈은 삽시에 떨어지고, 초속도로 전락을 계속하여 마침내 이 창고 속으로 굴러들어왔던 것이다.

악취가 코를 찌르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은 아내의 얼굴을 내려다보는 태현의 머리속에서, 기아에 광란한 —— 혹은 나 란히 시체가 되었을 늙은 부모의 노기 띤 얼굴이 힐책과 단죄의 몸짓 을 하며, 그를 노려보았다.

그는 들어올 때와 같이 어깨를 떨어뜨리고 말없이 되돌아 나갔다. 창고 밖에서는 아직도 맷돌질을 하고 있는 송 서방네 옆에서 옆칸 새 댁이 태현의 젖먹이 딸을 업고 무어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며 똥 걸레를 빨고 있었다.

태현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런 자기를 부끄러워하듯 시선을 반쯤 부서진 화차랑 말뚝이랑 헌 레일 같은 것이 너절하게 늘어져 있는 역 구내에 돌렸다.

수북하게 쌓아 올린 헌 레일 위에, 일곱 살 난 큰아들 홍인이가 서 있다. 한쪽 멜빵이 떨어진 누덕누덕 기운 누런 담요 바지를 입은 홍 인이는 철둑을 나란히 걷는 UN군 병사와 머리를 등에 풀어헤치고 새빨갛게 입술을 물들인 젊은 창녀에게, 송 서방네 두식이하고 둘이서 손짓으로 외잡(猥雜)한 욕을 하고 있었다.

사람이 층계에까지 주렁주렁 매달린 화차가 검은 연기를 뿜고 땅을 울리며 우르르 지나갔다.

철둑에서 키가 큰 사나이가 한 사람 내려온다. 홍인이와 두식이가 환성을 지르며 쫓아갔다. '청년'이었다. 양쪽에서 매달리는 아이들

손을 하나씩 붙들고 휘파람을 불며 가까이 왔다.

대현은 이 청년에게 치사를 할 의리가 있었다. 아내의 발병 이후 이 청년에게서 많은 도움을 받아 왔던 것이다.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인지는 모르나, 청년은 창고 생활에는 당치도 않은 제니스 라디오를 가졌고, 양담배를 피우는가 하면 식사는 노무자들 틈에서 먹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연 먹지 않고 지낼 때도 있었다.

동숙자들 중에서 대현이 이유 없는 막연한 존경을 부당하게 받고 있는 것과 같은 정도로, 이 청년에게는 의아와 경계와 호기의 눈초리 가 향해져 있었다. 송 서방네는 정신 이상자라고 한 일이 있다.

"오늘은 일찍 돌아오시는군요."

대현은 이렇게 말하고 초췌한 얼굴에 엷은 웃음을 띄웠다. "네."

청년은 가볍게 대답하고 태현이 앞에서 발을 멈추었다. 그는 팔을 잡아당기는 아이들에게 호주머니에서 껌을 하나씩 꺼내 주고 저리가라는 듯이 손짓을 했다.

이윽고 뛰어가는 아이들을 한참 바라보다가, 태현이 서 있는 옆으로 와서 쌓아 놓은 헌 레일 위에 걸터앉았다.

"하나 어떠세요?"

주머니에서 꺼낸 럭키 스트라이크를 내민다. 태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어색하게 손을 뻗쳐 한 개비 뽑아 입에 물었다. 청년은 재빨리라이터를 대어 불을 붙여 준다. 오래간만에 즐기는 담배의 향기——

"앉으시죠."

대현은 권하는 대로 청년 옆에 나란히 앉았다.

"걱정이시겠어요."

말없이 담배만 태우던 청년이 문득 입을 연다. 태현은 귀밑이 뜨거 웠졌다. 청년에게 이끌리지 않으면 치사의 말 하나 할 수 없는 자기 였던가. "참 여러 가지로 심려해 주셔서 무어라구……"

청년은 그 말은 들리지 않는 것처럼 덤덤히 앉았다가 갑자기 한쪽 뺨으로 씽긋 웃었다.

"박 선생은 모독의 쾌감을 느낀 일이 있으십니까?"

청년은 상대의 얼굴을 보지도 않고 이런 질문을 하였다. 그는 애초 부터 답은 기대하지 않았던 모양으로 곧 말을 이었다.

"모독의 쾌감! 상식에의 반역! 하하……."

웃으니깐 덧니가 들어나 애교 있는 얼굴이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왔는지 아시겠습니까?"

청년은 이렇게 말하고 푸른 광채가 나는 눈을 똑바로 뜨고 태현을 응시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는 지금 이 주머니에 상당한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난 돈이겠어요? 무엇을 하고 얻은 돈이겠어요? 하하……"

태현은 점점 이 청년이 무서워졌다.

"나는 이 돈을 그냥 이 자리에서 버려두 좋습니다. 전혀 필요 없는 돈이니깐요. 그런데 아버지를 협박하구 —— 외아들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있는 것과 부유층에 속한다는 것이 죄라면 죄일까, 아무 힘 없는 현재의 아버지를 협박하구……"

청년은 음울한 구조로 말을 이었다.

"용서 못 할 짓을 나는 했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돈을 내놓으신 건물론 공포에서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역시 내놓은 이상 자식이라도 무서운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지요. 아니 그렇다면 무슨 방법이라두 쓰셔서——아아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졌습니다. 하여튼 사건의 목적이 있다든가, 줄거리가 있다든가 하는 것과는 다르고,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이 무의미한 것—— 그것두 추악한 것에 지나지않으니깐요. 아 무엇을 여쭐려구 했는지……."

청년은 혼란한 듯이 한손을 이마에 대었다.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단죄해 주셨으면 —— 저도 이렇

게 혼란하지 않을 텐데, 아니 그것도 아니구."

그는 여전 손을 이마에 댄 채 상념을 정리하려는 듯이 눈을 감고 있다가 이번에는 꽤 명확하게 줄거리를 세워 말을 계속해 갔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그 혼란을 겪은 후, 다시 먼저 궤도를 걸어가는 것을 보면 기적 같습니다. 아까 모독이라 했습니다만, 모독이란 어디다 쓰는 말인지조차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청년은 이마에 대었던 손을 떼고 머리를 흔들어 올렸다.

"정의(正義)란 말이 이렇게 함부로 쓰여진 시대가 있었겠습니까? 원칙이 이렇게 동요되고 전환된 시대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나는 죄란 말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재판하는 자는 사람이 아니라고 믿어야 되겠습니까?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처음 가진다는 것이 우스운 일입니다만—— 한편에서 죄악시하는 사실이다른 한편에서는 오히려 숭고한 행동으로 찬양을 받게 되는 사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아무 모순 없이 합리화되는 사실—— 누누이 말씀할 것은 없습니다만—— 불행하게도 나는 내 눈으로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청년은 말을 끊었다가 곧

"내 눈으로 보았어요."

거듭 말했다.

"그래서 나는 선악의 구별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세기의 비극이지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태현은 이렇게 말하고 한숨을 쉬었다.

"아니 들어 주세요. 제게 친구가 둘 있었습니다. 동기가 없는 저는 순수하게 열렬하게 그들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모두 젊고 씩씩하고 총명하고 아름다운 청년들이었지요. 우리들은 같은 대학에 적을 두고, 사랑과 정열을 가지고 진리를 탐구하고 인생을 구가하였습니다. 그러나 폭풍이 왔습니다. 사람을 광란시키는 무서운 폭풍이.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저 혼자 남아 버렸습니다. 한 사람은 여름에 저들의 손

에 죽고, 한 사람은 그를 죽인 자를 따라 북으로 가고 —— 나에게 있어서는 두 사람이 다 죽은 것이지요."

"한두 사람의 예가 아니니깐요."

태현은 이렇게 공허함 말로 위로를 할 수밖에 없었다.

"부산으로 피난올 때 일입니다. 가족들이 트럭으로 남하한 후 최 후까지 남았다가 인천서 배루 떠나게 되었는데, 공포에 광란한 사람 들이 쇄도하여 그 혼잡이란 한마디로 말할 수가 없는 광경이었습니 다. 개인 소유의 조그만 배라 적재 정량은 훨씬 넘었는데 공포와 초 조에 살기 찬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뛰어오르려 합니다. 참 생각하 면 무어랄까요. 누가 그리 애틋하게 따뜻이 맞아 줄 것이라구, 누가 간절히 손을 잡아 이끌어 줄 것이라구 그렇게 애들을 썼는지요. 하여 튼 그냥 두면 배가 침몰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 나는 보아서 안 될 것을 보았어요. -- 완강한 선원이 몇 사람 선측에 서서, 뛰 어오르려는 사람을 발길루 차서 바닷속에 처넣기 시작했던 것이에 요. 나는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이 그 혼란 속에서 바닷속에 떨어져 영영 보이지 않았습니다. —— 나는 여지껏 그 광경 을 잊지 못해서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견딜 수 없는 것은 그 때의 선원들의 행동을 정당 방위상 불가피한 것이라고, 긍정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안 했으면 배는 침몰할 수밖에 없었으니깐요. 그 후부터 제 이성은 극도로 혼란하여, 제 성격이 이 렇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태현은 잠자코 입맛을 다셨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청년이 또 입을 열었다.

"저는 모든 것을 다시 고쳐 보게 되었어요. 전쟁이란 사실두—— 그러나 확고한 신념이 없는 저는 점점 더 혼란해 갈 수밖에 없어졌습 니다. 목숨이 주체스러워 공연히 맑은 물을 휘저어 흐리게 하곤, 결 국 제일 많이 구정물을 뒤집어쓰구……"

청년은 현기가 나는 것처럼 손을 또 이마에 갖다 대었다. 대현은

한참 말을 선택하다가 입을 열었다.

"고뇌(苦惱)에의 기호(嗜好)를 가지셨달까요?"

"네?"

"고뇌에의 기호를요, 아시겠어요? 외람됩니다만 내게 한 마디 하게 해 주신다면……"

"말씀허세요."

"모—든 인간 생활의 제약을 믿을 수 없게 되셨다면……" "네."

"로맹 롤랑이 이런 말을 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기 내부에 있어 자기를 의식하는 존재물로써만 신을 믿는다' —— 당신으로부터 출발하여 당신에게 그치는 도덕에 의지하시지요."

····· "

청년은 손을 이마에 댄 채 말없이 태현을 응시하다가 일어섰다. '자기 내부에 있어 자기를 의식하는 존재물로써만 신을 믿는다.' 그는 가만히 입안에서 되뇌었다.

대현은 문득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 얼굴을 붉히고 청년을 따라 일어섰다. 도덕이니 신이니 한 것이 부끄러웠다. 여지껏 팔아먹고 사는 생활에 한 번도 직접 물건을 시장에 들고 나갈 용기조차 못 가졌던 자기가, 남에게 주제넘게 설교다운 말을 한 것이 부끄러웠다.

길가에서 담배 장사를 해서, 그래도 하루에 얼마씩 떨어지게 하던 아내가 누워 버린 후, 팔 만한 것은 거의 다 없애 버리고 값나갈 만한 것은 자기 양복 한 벌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내는 이 품질은 극상이나 구식 스탈일이 되어 버린 양복을 가보(家寶)나 되는 것처럼 소중히 싸서 벽에 걸어 놓고 있었다. 그것마저 없애 버리면 취직이 되더라도 입고 다닐 옷이 없었고, 첫째 그럴듯한 취직 운동을 하러 나갈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 수삼 일 전부터 태현의 시선은 언제나 벽에 걸린 보퉁이 가를 감돌고 있었다.

청년과 나란히 창고로 돌아가는 그의 머리에는 또 이 양복 보퉁이

가 떠올랐다.

"뭐가 어쨌다구요? 뭐요? 아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럴 수가 있어요?"

울상이 섞인 질자배기 깨어지는 소리가 창고 밖에서 들려온다. 아까 서울로 올라갈 날도 얼마 안 남았다고 좋아하던 송 서방네의 음성이다.

"아이구 저걸 어째! 그래 그런 법두 있나요?"

이윽고 울음이 터져 나왔다.

"아이구 아이구."

송 서방네가 목을 놓고 울며 들어오는 뒤에서 풀이 탁 죽은 송 서방이 고개를 숙이고 힘없이 들어와 자기 칸에 턱 주저앉았다.

"웬일이에요? 네? 무슨 일이 났어요?"

창고 안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래 가지고 모여들었다. 송 서방은 외면을 하였을 뿐 말이 없고, 송 서방네가 악다구니부터 하기 시작했다.

"아이구, 도둑눔 같은 눔들 같으니. 그래 약사발을 앵기는 게 낫지, 그래 이렇게 사람을 생으루 잡어야 옳담—— 아이구 후욱."

"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 글쎄 물건을 몽탁 뺏겨 버렸다는 거예요. 글쎄 이럴 데가 어디 있어요? 온 도둑질을 헌 물건인가 뭐, 있는 걸 박박 긁은 데다가 남의 돈까지 얻어 시작헌 장산데 그래 그렇게 뺏어가는 데가 어딨단 말이에요. 아이구."

"물건을 뺏겼다니요?"

"글쎄 삽시에 삼지 오겹으루 MP허구 경관들이 국제 시장을 둘러싸서, 개미 새끼 하나 못 나가게 허군, 물건을 하나 없이 다 뺏어서차에 실어 갔다는 거예요."

"미군 물자뿐이지요? 먼저부터 그런 말이 있습디다만."

이상호가 딱한 듯이 말하자, 송 서방네가 악을 쓰며 덤볐다.

"그럼 왜 진작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네 그래 한자리에서 지내면서 그럴 데가 어디 있어요?"

이상호는 무안하여 여자같이 귀여운 얼굴이 벌개졌다.

"듣그러, 닥치구 있어!"

송 서방이 소리를 꽥 지른다.

요즘 영감을 잃은 배 노인의 마누라가 무표정한 얼굴로 그쪽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그 빛 없는 눈에는 아무것도 비치지는 않는 것 같았다. 그의 가슴에는 두 아들의 모습과 쓰레기같이 간단하게 치워져버린 불쌍한 영감 외에는 아무것도 넣을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가엾어라!"

누운 채 소동을 들은 태현의 아내가 누렇게 뜬 얼굴을 찌푸리고 가 만히 뇌었다.

태현은 변양된 아내의 얼굴을 보고 또 벽에 걸린 보따리에 시선을 옮겼다. 아내의 병든 얼굴과 이제 와서는 물질 이상이 되어 버린 최후의 의류와——. 그것을 없애 버리는 것은 자기가 고집하려는 세계와의 절연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는 어디가 아프기나 한 것처럼 미간에 주름을 잡은 고뇌를 띤 눈초리로 벽 켠을 더듬다가 힘없이 일어나 고개를 떨어뜨리고 바깥으로 나갔다.

바깥에서는 헌 레일 위에 앉은 옆칸 새댁이, 자기의 젖먹이 딸을 안고 어르고 있었다. 무어라고 혀 짧은 소리로 어린것을 어르고는, 조그만 가슴에다 얼굴을 묻고 부빈다. 젖먹이는 간지러워 깔깔 소리 를 내고 웃었다. 이른봄의 부드러운 햇살이 둘의 머리를 쪼이고 있 다. 스무 살 난 새댁은 처창한 창고 생활도 더럽힐 수 없는 순결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봄이었다. 매연과 먼지에 덮인 철둑에도 푸른 것이 싹트기 시작하고 아침이면 앞산 허리에 안개의 띠가 걸렸다. 서울 탈환이 목첩에 있어 전재민 촌에도 약간 생기가 돌았다.

새댁은 한참 동안 이 병든 어머니를 가진 옆칸 어린것을 어르다가, 문득 어느 충동을 받아 보는 사람도 없는데 귀뿌리까지 발개졌다. 가 슴이 두근거렸다. 자기 몸 속에서, 싹터 자라는 새생명의 움직임을 느꼈던 것이다. 그는 갑자기 어린것이 놀라 울도록 조그만 그 몸을 꼭 껴안고 미끄러운 뺨에 상기된 자기 뺨을 갖다 대었다.

새댁 앞을 청년이 호주머니에다 두 손을 넣고 발끝에 눈을 떨어뜨리고 체조나 하듯 무릎을 꺾고는 발을 내 더듬으며, 생각에 잠긴 채느른느른 지나갔다. 그는 젊은 과부라는 환경이 더욱 매혹을 가져 애욕을 느꼈던 신미령 —— 요즘 창고에서 자취를 감춘 신미령과 지금길에서 만나 헤어지고 오는 길이었다.

요란스럽게 머리를 지져 붙이고 가늘게 눈썹을 그리고 아이섀도를 칠한 고운 눈을 재그시 감으며 새빨갛게 칠한 도톰한 입으로 요염하 게 웃던 신미령의 자태가 눈에 아른거렸다.

화장과 차림차림으로 자기의 신분을 또렷이 표시하고 있는 미령은 그러나 조금도 어색하지 않은 표정으로 창고 속에서 같이 살 때도 한 번도 말을 건네 본 일이 없는 청년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선생님은 비 오시는 날 이런 일을 경험하신 일이 없으신지요? 서울서였지요. 어느 날 곱게 차리구 외출을 했는데 갑자기 날이 궂어져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청우 겸용의 우산을 가지고 나갔기에비 맞을 염려는 없었습니다만, 새하얀 진솔 버선에 긴 새치마를 입고있던 저는 어떡하면 이 치마와 버선을 더럽히지 않구 집에까지 갈 수있나 하고 조심조심 치마를 휘어잡고 물이 고이지 않은 데로만 골라디며 길을 걸어갔어요. 그 조심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한 방울의 물도 흙도 묻히지 않고 갔습니다만, 종로에서 안국동까지 가는 데거의 이십 분이나 걸렸어요. 그렇게 온갖 신경과 시간을 쓰며 가는데, 뒤에서 달려온 자동차가 전속력으로 옆을 지나가는 것을 피할 새가 없어 아스팔트 패어진 곳에 고인 더러운 흙물을, 머리에서부터 뒤집어써 버렸었어요. 얼마나 약이 올랐겠어요. 저는 울상을 하고 달

려가는 자동차를 쏘아봤습니다만, 물론 부질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기 안 했던 일이 생겼습니다. 글쎄 옷을 쫄딱 버린 후부터는 그저 마른땅 걷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땅을 걸을 수가 있지 않겠어요? 전 차두 기다리지 않구 내쳐 돈암동까지 걸어 버렸어요, 나중에는요, 일부러 진창을 철벅철벅 걷기두 허구, 그 기분이란 무어랄까요? 참 자유롭구 거리끼는 것이 없구, 말하자면 불명예의 향락이랄까요? 네 그래요. 옷을 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 않으니깐, 아주쉽게 힘 안 들이고 걸어갈 수가 있었어요. 호호……"

그 웃음소리가 귓전에 잔잔하다. 문득 언젠가 박태현이 하던 말이 머리에 떠올랐다.

"자기로부터 시작되어 자기에서 그치는 도덕……"

확신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 무의미하게 이 더러운 창고속으로 돌아가는 그였다.

그는 머리를 크게 한번 가로 흔들고, 창고 속으로 들어가 습습한 멍석 위에 벗지도 않고 쓰러졌다.

얼마를 지났는지 눈을 떠 보니, 이상호 내외가 밖에서 막 들어오고 있었다. 누운 채 그들을 바라본 청년은,

하고 일어나 앉았다.

여자같이 귀여운 이상호의 얼굴에 이상한 표정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똑바로 앉아, 이상호의 얼굴을 쏘아보았다. 이상호는 그 시선 을 세차게 받아 한참을 섰다가, 억양이 없는 소리로 불쑥 던지듯이 "제이국민병 소집령을 받았어요."

하고 씽긋 웃었다.

이때까지 아내에게는 말을 안 했는지 새댁은 그 말을 듣자 무의식 중에 한번 몸을 움쭉하고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밖에서 들어온 태현이 심중한 표정으로 옆에 와 섰다. 청년과 태현은 이 전시에 있어서는 오히려 보통인 사실에 웨일인지 혼동한 모양

이다. 경종을 들은 사람 모양으로 우두커니 서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들도 역시 해당자였던 것이다. 두 사람은 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얼핏 머리에 떠오르지 않아, 말없이 이상호의 손을 잡았다.

낙양성 십리허에

높고 낮은 저 무덤에 영웅 호걸이 몇몇이며 허엄 허 허······

한잔 한 듯한 지상이 탁한 음성으로 소리를 하며 들어온다. 새끼로 묶은 생선을 바른손에 들고 왼손에는 시금치 뭉치를 안고 있다.

"허허…… 박 선생 아주머니께 좀 헤헤……."

그는 겸연쩍은 듯이 웃으며 생선을 내밀고 자기 칸에 가서 턱 앉았다.

대현은 문득 정민택 씨와 변지용의 생각이 났다. 세상에는 남에게서 여러 가지로 정성을 받으며 받는 쪽이 오히려 주는 쪽에게 은혜다운 것을 입히는 경우가 있다. 선량하고 둔중한 이 노무자인 지상도지식 계급인 자기가 이 소박한 선물을 사양한다고 모욕이라고도 할수 있는 감정——오히려 섭섭하고 부끄러운 생각을 가지리——이런 상념이 번개같이 머리를 스쳤다.

"고맙습니다. 온 염치가 없어서……."

선량한 지상은 이 한 마디 치사에 만족하여 가죽 같은 얼굴에 희색을 띄웠다. 태현은 마음이 풀려지는 것을 느끼고 옆칸 이상호를 건너다 본 후 시선을 돌려 누렇게 부은 아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이윽고 내일은 꼭 벽에 걸린 보따리를 내려서, 시장에 들고 나가리라 결심하였다.

청년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로 자리에 드러누워 움직이지도 않는다. 이상호의 응소(應召)는 그에게 충동을 준 모양이다. 창고 생활을 청산하고 동시에 자기 성격도 추려 가다듬으려고 하는지, 더욱 혼란을 받고 있는지는, 미동도 하지 않는 자세에서 엿볼 수는 없었다.

창고 밖에서 밥을 짓는 연기가 멱서리를 걷어 올린 문으로 함부로들어와 새댁 등에서 곤드라졌던 젖먹이가 콜콜거리며 눈을 떴다. 여러 가지 반찬 냄새가 이곳 독특한 취기, 습습하고 퀴퀴한 곰팡이 같은 썩은 냄새에 와 섞였다.

대현은 아내의 머리맡에 놓은 풍로 위에서 괴상한 냄새를 내며 부 글부글 끓고 있는 잡탕 냄비 뚜껑을 열어 무쇠같이 찌든 숟갈로 한번 휙 저었다.

지상은 멍석 위에 벌떡 자빠져 콧소리를 하고 있다. 태현은 그 음성에 갑작스레 깊은 친밀감을 느꼈다.

넋두리를 하고는 한숨을 쉬던 송 서방네가 치맛자락을 쓱 뒤집어 코를 핑 풀고 마음이 내키지 않는 모양으로 냄비를 들고 바깥으로 나 갔다.

아무도 불을 켤 생각을 하지 않는 창고 속에는 점점 어둠빛이 짙어 갔다.

(1951. 5.)

STATE OF THE POST OF THE POST

'크만합니다. 은 영화가 없어서……."

电影群众 电电台 电影 电影 电影 电影 医乳腺 医乳腺 经收益 이상보를 전혀

후보 나이라 두 병에 경인 보다리를 내려서 시장에 들고 나가리라

방면은 투운 생각을 되는지, 도로 저희의 토러누의 유적이지도 않

信於 四條 科伊松里 等 是著語 医阳耳 当/诗韵/全条 阵更合物。 扫当

라운 반고 있는지는, 비롯도 하지 않는 자세에서 얼을 수는 없었다.